

고택(古宅)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조금은 무겁고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지는 감정. 영월 우구정 가옥에서 감수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낮춤' 단 한 가지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공간에서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변화한다. 심지어 우구정 가옥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누가, 언제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곳이라 손꼽아 따져 봐야 하는 연대기로부터도,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의 다양한 업적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우구정 가옥이라는 이름 역시, 이 집이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 집 주인의 이름이 '우구정' 씨였기에 붙여진 이름일 정도이다. 그래서 더욱 자연스럽게 친근하다.



### 내부 배치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70호

# 영월 우구정 가옥

禹 九 鼎

초야에 묻혀 있던,  
아담한 기와집의  
재발견

### 오시는 길



주소 강원도 영월군 남면 들골안길 127-4  
전화번호 ☎033-372-5704 / HP 010-7160-5714



낮춤,  
그 안의 층만한 온기



## 사라진 이야기 살아있는 공간

대부분의 고택들이 누구의 계획에 의해 어느 해에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렸는지 세세하게 기록해놓은 반면, 영월의 우구정 가옥은 지어진 지 380년 정도라는 추측만 가능하다. 이 집을 지키고 있던 이의 이름을 따서 우구정 가옥이라 지은 것처럼 집의 역사는 미궁 그 자체이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측이 가능하다.

영월에는 이렇다 할 양반집을 찾아보기 힘든데, 그런 면에서 우구정 가옥은 꽤나 독특한 존재다. 그 규모야 어찌 되었든 우구정 가옥은 공을 들여 제대로 지은 '기와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현재 집을 지키고 있는 우수명(禹壽命) 씨는 "조선 제6대 왕인 단종(端宗, 재위 1441~1457)이 영월로 유배됐을 때 함께 이곳까지 따른 선조들이 이 집을 지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선대 어른들을 통해 들은 기억이 있다"라고 회상했다.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던' 아담한 집은, 한 여행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마침 그 여행자들이 공무원이었던 덕분에 집의 가치에 대해 새롭게 조사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지금은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많은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우구정 가옥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부분은 이 집의 아늑함이다. 실제 우구정 가옥은 길의 아래쪽, 강 의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상당히 안정적일 뿐 아니라 겨울이면 모든 방에 장작으로 군불을 지피기 때문에 "전통한옥은 추울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다.



## 생활이 만들어낸 빛을 품고 있는 안채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건넌방을 두고 왼쪽에 안방과 부엌을 직각으로 둔 ㄱ자형으로 팔작지붕을 얹고 있다. 대청 기둥만은 굵은 원형의 기둥을 사용한 점이 특이하다. 대청은 사람이 오랫동안 살면서 생활의 손때가 만들어낸 깊은 빛깔이 강렬하다.



## 다정하게 품을 열어놓은 사랑채와 담장

사랑채는 一자형 평면을 갖추고 있다. 오른쪽부터 마루·사랑방·대문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앞쪽에는 넓은 툇마루를 설치하였다.

사랑채와 대문이 연결되어 있어, 대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담과 담 사이의 남은 공간으로 진입하는 느낌은 뼈대 있는 양반 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골 외갓집에 온 듯한 푸근한 느낌이 든다

## 외갓집 같은 편안함으로 기억되는 공간

우구정 가옥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다른 어느 곳보다 압도적으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수의 고택들, 그러니까 대문을 지나 마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저절로 호흡을 가다듬게 되고 스스로의 품행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위압감이 서려 있는 고택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따뜻함이 우구정 가옥에는 있다.



## 강원도 인심, 이런 맛이래요

우구정에서는 투숙객에게 아침상을 마련해주고 있는데, 청국장과 두부 등 콩을 이용한 요리가 주 메뉴. 우구정의 우수명 씨가 직접 콩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인데,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먹기 위한 것이라 정성을 많이 들여 키운다.

소박한 상차림 안에 깃든 정성과 따스함도 우구정에서 맛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품미.



### [우구정 가옥 숙박정보]

- ❖ 사랑방 남자 주인이 머물며 손님을 맞이하던 곳. 5~6인용
- ❖ 안방 집의 여자 주인이 기거하던 곳. 8~10인용
- ❖ 건넌방 인방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다용도실. 4~5인용

- \* 아침 식사는 유료(예약 필수). 저녁 식사는 제공하지 않음
- \* 모든 방에서 취사 불가. 마당에서 바비큐만 가능
- \* 외부 화장실과 욕실 사용

